

#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허페이 · 타이위안

박진희 연구원 jhpak@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 허페이(合肥) 개황

- ▶ 안후이(安徽)성의 성도
- ▶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나아가는 관문에 위치한 LCD 제조기지
  - 면적 : 11,409km<sup>2</sup>
  - 인구 : 731만 명(2015)
  - 인구밀도 : 640.7명/km<sup>2</sup>(2015)
  - 지역총생산량(GRDP) : 5,560억 위안(2015)
  - 1인당 지역총생산량 : 73,102달러(2015)
  - 고정자산투자 : 6,153억 위안(2015)
  - 소매판매총액 : 2,184억 위안(2015)
  - 산업구조 : 1차 4.7%, 2차 54.7% 3차 40.6%(2015)
  - 기후 : 아열대 계절풍기후, 연평균 기온 15.7°C, 연평균 강수량 1,000mm
  - 자매도시 : 강원도 원주시

## 타이위안(太原) 개황

- ▶ 산시(山西)성의 성도
- ▶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으로 자원의존형 경제 탈피에 노력하고 있는 석탄 도시
  - 면적 : 6,988km<sup>2</sup>
  - 인구 : 432만 명(2015)
  - 인구밀도 : 619.2명/km<sup>2</sup>(2015)
  - 지역총생산량(GRDP) : 2,735억 위안(2015)
  - 1인당 지역총생산량 : 63,483위안(2015)
  - 고정자산투자 : 2,026억 위안(2015)
  - 소매판매총액 : 1,541억 위안(2015)
  - 산업구조 : 1차 1.4%, 2차 37.3% 3차 61.3%(2015)
  - 기후 : 온대 계절풍기후, 연평균 기온 9.5°C, 연평균 강수량 468.4mm
  - 자매도시 : 없음

##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2015년 1차 대상지

- 중서부 지역 거점도시 : 충칭(직할시, 우한(후베이성), 정저우(허난성), 시안(산시성)

### 2016년 2차 대상지

- 남 중부지역 주요도시 : 창새(후난성), 난창(장시성)
- 서부지역 주요도시 : 청두(쓰촨성), 랴저우(간수성)
- 북동 중부지역 주요도시 : 허페이(안휘성), 타이위안(산시성)
- 서부 국경도시 : 우루무치(신장), 쿤밍(윈난)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의 핵심 도시 대상은 대외경제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성



## 1. 허페이(合肥)

### 기본 현황

- 안후이성 성도인 허페이는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
  - 창장(長江)삼각주 도시군<sup>1</sup>의 거점도시인 난징(南京)시와 창장중류도시군<sup>2</sup> 거점도시인 우한(武漢)시 사이에 위치
  - 개혁개방의 수혜를 입은 동부 연해 도시들에 비해 발전이 뒤쳐졌으나 중서부 내륙이 개발되며 동부와 내륙을 잇는 관문으로 발전
    - 난징-시안(西安)을 잇는 철도인 '닝시(寧西)선', 상하이-우한-청두(成都)를 잇는 고속철도 '후한릉(滬漢蓉)선'이 허페이를 경유
-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중원과 강남 세력이 격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한국인 에게도 잘 알려진 포청천(包青天), 리홍장(李鴻章) 등의 위인이 출생한 곳으로서 역사·문화적 의의가 높은 지역
  - 삼국시대 위나라 장수 장료(張遼)가 병사 7,000명으로 오나라 손권(孫權)의 10만 대군을 물리친 소요진(逍遙津) 전투의 무대
  - 도시 중심부에 중국인의 존경을 받는 송나라 명판관 포청천의 묘, 청말 정치가 리홍장의 고택이 소재
- 2000년대 후반부터 동부 연해지역의 산업이 이전하고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진출하면서 발전 가속화
  - 중국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연해지역에 집중된 산업을 내륙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허페이는 '완장(皖江)도시군 산업이전 유치 시범구'의 중심 도시로서 여러 기업이 이전
    - 메이디(美的), GREE, 하이얼(海爾) 등의 가전회사들이 이전해 허페이 로 켈기업인 메이링(美菱), 룡스다(榮事達) 등과 산업체인을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가전 제조기지로 부상
  - BOE는 2008년 허페이에 진출하였으며,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10.5세대 LCD 패널 공장을 건설

**1** 창장 하류의 상하이시,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을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90년대 공업 발달로써 중국 경제를 이끌어옴. 2014년 허페이를 포함한 안후이성 일부 지역도 창장삼각주도시군에 편입.

**2** 창장 중류 유역에 위치한 우한시, 창사시, 난창시를 중심으로 중국 중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도시군.

**행정구역 현황**

- 4개의 구(區), 1개의 현급시(縣級市), 4개의 현(縣)으로 구성
  - 중앙에 위치한 야오하이(瑶海)구, 루양(庐阳)구, 수산(蜀山)구, 바오허(包河)구가 도심지역에 해당
  - 야오하이구: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허페이역(合肥站), 허페이 동역(合肥東站) 등 주요 기차역을 중심으로 도소매 상점과 물류업체, BOE 산업단지 등이 운집
  - 루양구: 2016년 초까지 안후이성 정부기관이 소재해 오랫동안 도시 중심지로 기능했던 곳으로, 서울의 명동과 같은 화이허루(淮河路) 보행가, 리홍장 고택, 샤오야오진 공원 등이 위치
  - 바오허구: 2006년부터 신도심 '빈후신구(濱湖新區)'가 개발된 지역으로, 안후이성 성정부, 대형 쇼핑센터, 고급호텔, 은행 등이 밀집한 허페이의 새 정치·경제·문화 중심지
  - 도시 동남편의 차오후(巢湖)시와 루장(庐江)현은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허페이시에 편입되었고, 중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호수인 차오후가 있음<sup>3</sup>

**그림1** 허페이의 행정구역 및 차오후·리홍장 고택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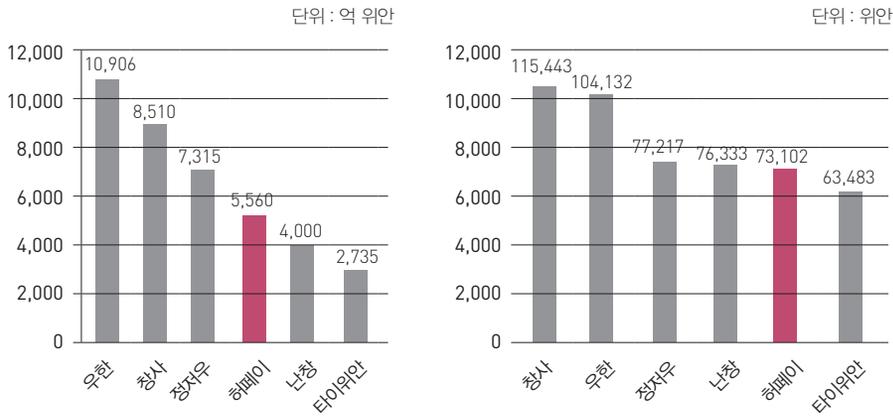
자료 지도-위키피디아 그림파일 수정  
 (https://ko.wikipedia.org/wiki/%ED%97%88%ED%8E%98%EC%9D%B4\_%EC%8B%9C#/media/File:Hefei\_si.png); 사진(上)-허페이시 정부 홈페이지(www.hefei.gov.cn); 사진(下)- 저자 촬영

**3** 허페이시 정부는 차오후의 수질오염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한이나 정저우(鄭州) 등 중국 내륙지역의 다른 성도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함.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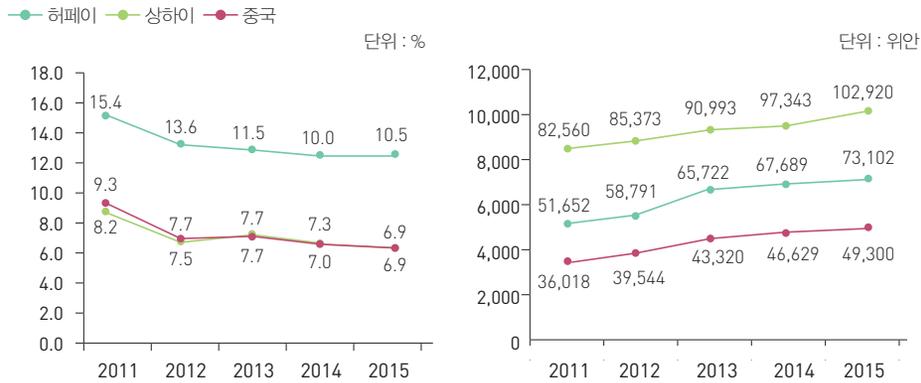
- 허페이의 GRDP, 1인당 GRDP 등 경제규모는 중부지역 대표 도시인 우한시, 창사시, 정저우시에 비해 작은 편
  - 허페이의 2015년 GRDP는 약 5,560억 위안으로 우한시의 약 51%에 불과
  - 2015년 1인당 GRDP는 73,102 위안으로 우한시, 창사시, 정저우시에 비해 낮은 편

**그림2** 중부지역 주요도시 GRDP, 1인당 GRDP 비교(2015)



주 중부지역 6개 성의 성도인 후베이(湖北)성 우한시, 후난(湖南)성 창사시, 허난(河南)성 정저우시, 안후이성 허페이시, 장시(江西)성 난창시, 산시성 타이위안시를 비교  
 자료 CEIC, 각 지역 2016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그림3** 허페이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RDP(2011~2015)



자료 CEIC, 각 지역 2016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 그러나 허페이시는 최근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중국 전체적인 경기 둔화 추세에 따라 허페이시도 2011년 이래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성장률은 10.5%로 중국 전체 평균(6.9%)을 크게 상회
  - 중부지역의 우한시, 창사시보다 성장률이 높을 뿐더러, 중국의 27개 성도 중 구이양(貴陽)시, 시닝(西寧)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1인당 GRDP 역시 상하이의 약 71%에 불과하나 최근 연평균 9%의 속도로 꾸준히 상승하는 단계
  
- 신흥 공업도시인 허페이는 2차 산업 비중이 높다. 특히 장비제조, 가전, 전자정보, 자동차 등 산업이 발전
  - 허페이는 중국의 굴삭기, 지게차 주요 생산기지 중 하나이며, 허리(合力)지게차, 히타치, ABB 등 기업에서 단조프레스, 계측기 등을 생산
  - 메이디, GREE, 하이얼 등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회사가 모두 소재해 있는 중국 최대 가전 생산기지로, 주요 생산품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TV의 2015년 생산량이 6,000만 대를 초과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도 2015년 허페이에 진출하여 가전 R&D 센터 및 생산기지 건설 중
  - 발전이 가장 빠른 분야는 디스플레이 제조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보산업
    - BOE 8.5세대 공장은 월 7만 장의 LCD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65인치 대형 TV용 패널을 월 9만 장 이상 생산할 수 있는 10.5세대 공장이 2018년 가동될 예정
    - 허페이시 정부는 올해 초 일본 반도체회사 시노킹과 협력해 대형 D램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분야 산업도 발전 중
  - 전기차로 유명한 장화이자동차(江淮氣車·JAC), 버스 제조업체 안카이(安凱)를 중심으로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이 발전

**표1** 허페이시 6대 주도산업의 부가가치 및 증가율(2015년)

산업	부가가치(억 위안)	증가율(%)
장비제조	350.2	7.1
가전	342.2	7.0
평판디스플레이 · 전자정보	314.9	27.6
식품 · 농부산물 가공	201.1	4.8
자동차 · 자동차 부품	174.2	18.3
태양광 발전 · 신에너지	74.0	19.5

자료 허페이시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合肥市201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13·5 계획 시기 도시발전 계획<sup>4</sup>

- 향후 5년 동안 허페이는 1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GRDP 규모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창장삼각주 도시군의 부(副)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주력
  - BOE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보 · 가전 · 자동차 분야의 투자가 활발해 경제성장 전망이 큰 편
  - 2014년 창장삼각주 도시군에 편입된 허페이는 교통 연계, 산업집적을 가속화해 기존 부중심도시인 난징, 항저우(杭州)에 버금가는 거점도시로 발전 예상
- 전자정보, 신에너지자동차, 가전제품 기술 향상으로 현재의 우위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하철 노선 확대와 무선인터넷망 보급을 확충할 계획
  - 신형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양자(量子)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집적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함
  - 현재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이 완성차의 조립 · 제조에 특화되어 있으나, 배터리 · 변압기와 같은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산업체인을 보완할 계획
  -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인터넷 접속 기능을 내장한 가전제품 개발 · 제조에 노력
  - 올해 안으로 지하철 1호선 운영을 시작하고, 현재 2~5호선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6~8호선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하는 등 도시 궤도교통망 확대
- 차오후의 수질환경 개선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차오후는 농약 · 화학비료 및 공장폐수 등으로 인해 수질환경이 악화되고, 어족 자원이 급감, 녹조현상이 심각한 상태
  - 차오후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총인(TN), 총질소(TP) 등의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친환경 정작기술 도입 및 공업단지 폐수

4

13:5 계획 시기인 2016~2020년의 5개년을 가리킨 중국 정부는 1953년 이후 5년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5년 간 추진할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올해는 새 5개년계획이 시작하는 첫 해임.

통합처리시설 확대에 노력

- 또한 2020년까지 호수 주변에 2,000ha에 달하는 습지를 복원함으로써 호수 자체의 정화능력을 향상시킬 예정

**표2** 허페이시의 13·5 계획 시기 주요 발전 계획

구분	주요 목표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2020년 GRDP 1조 위안 달성, 1인당 GRDP 12만 위안으로 증진</li> <li>• 국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 교통허브 · 과학 중심지, 창상삼각주 도시군의 부(副)중심도시로 발전</li> </ul>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형 디스플레이 · 집적회로 · 양자(量子)정보통신 등 분야 기술 개발, 기업 집적을 통해 세계 일류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li> <li>• 배터리 · 변압기 등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 체인 보완</li> </ul>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 · 의료 · 군용 로봇, 궤도교통, 머신센터 분야 육성해 첨단장비제조산업 클러스터 구축</li> <li>• 환경친화적 · 에너지절약형 · 스마트 가전 연구개발</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 인터넷망,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분야 기술 · 서비스 제고, 전자상거래 육성</li> <li>• 국내의 은행, 보험 · 증권회사 유치, 인터넷금융 발전, 자본시장 활성화로 50개 이상 기업 상장</li> <li>• 호수(차오후)를 활용한 관광 · 레저산업 육성, 매년 관광객 1억 명 유치</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1~8호선 구축, 2020년까지 지하철 노선 총 길이 170km로 확대</li> <li>• 2020년까지 도심지역 무선인터넷망 보급률 100% 달성, 대용량 콘텐츠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광전송망(All Optical Network) 확대</li> <li>• 농촌에 도로 800km 추가 건설, 농촌의 전력망 · 인터넷망 개선, 농촌 식수 안전성 제고</li> </ul>
차오후 수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가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해 호수생태 치리프로젝트 실시</li> <li>• COD, TP, TN 등 오염물질 통제제도 실시</li> <li>• 친환경 경작기술 도입, 공업단지 폐수 통합처리시설 확대</li> <li>• 2020년까지 2,000ha의 습지를 복원하여 호수 정화능력 향상</li> </ul>

자료 허페이시 13·5 계획(合肥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 허페이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合肥市政府工作報告)

**한국과의 교류 현황**

- 허페이시는 2002년 강원도 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 중이며, 최근 충남 서산시 등지와도 교류 확대
  - 자매결연 후 지역행사 참석, 예술단 방문 공연 등의 문화 · 예술 교류를 주로 진행해왔으며, 박람회 참석과 같은 비즈니스 교류도 수행
    - 2010년 원주시의 중소기업이 미니세일즈단을 구성해 허페이에서 개최된 하이테크박람회에 참석, 5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사

- 허페이시와 서산시는 2008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올해 5월 경제교류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 중

**표3** 허페이시-한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현황(2016년)

	한국 자치단체명	체결일자	체결형태
허페이시	강원도 원주시	2002.6.20	자매
	대전시	2003.10	우호
	충청남도 서산시	2008.6	우호
안후이성	강원도	2015.9	자매

자료 행정자치부,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국가별) 등 각종 자료 정리

- 허페이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아직 많지 않은 편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형 부품 회사가 주를 이룸. 현재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은 롯데케미칼
  - 동진썬미켐이 2010년 진출하여 LCD 부품을 BOE에 납품하고 있으며, BOE 등에 LCD 및 반도체제조용 장비부품을 수출해온 위지트가 허페이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
  - 2011년 대기업 제조법인으로서 처음으로 롯데케미칼이 허페이에 진출하여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생산공장 설립
- 허페이시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유통, 의료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 중
  - 2014년 허페이시 핵심상권에 위치한 인타이(銀泰)쇼핑몰에 한국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국관 조성
  - 2016년에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디유넷이 허페이 로컬기업과 협력해 온·오프라인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의 한국상품을 판매하는 슝마련
  - 순천향대의료원은 올해 초 허페이의 한 개발구에 설립될 종합병원에 병원 건립, 건강검진 및 의료정보 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MOU 체결

## 2. 타이위안(太原)

### 기본 현황

- 산시성 성도인 타이위안시는 베이징에서 서부 내륙지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한 분지 도시
  -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 몽골초원과 맞닿아 있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는 군사적 요충지
  - 명·청 시대 타이위안 지역의 상인들은 군량 수송으로 모은 돈으로 미곡 중개, 면포·견직물 판매와 같은 상업 및 금융업을 크게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진상(晉商·산시성 출신 상인)’이라는 별칭을 갖게 됨<sup>5</sup>
- 석탄, 석고, 철, 알루미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중국의 에너지·중화학 공업기지로 발전
  - 산시성은 중국 최대 석탄산지로, 타이위안시도 전체 도시의 1/5이 석탄산지 일 정도로 석탄이 풍부하며, 석고·철·마그네슘·동·알루미늄 등의 광물이 많이 매장
  - 1930년대부터 타이위안강철그룹(太原鋼鐵集團) 등 기업이 설립되어 대규모 제철소를 건립, 타이위안시의 경제를 견인
- 최근에는 지하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 타이위안시 경제는 자원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석탄가격 하락, 글로벌 경제 둔화와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하며, 석탄연소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
  - 이에 타이위안시 정부는 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한편, 관광·금융·신에너지·신소재 등의 산업을 발전시킬 예정

### 행정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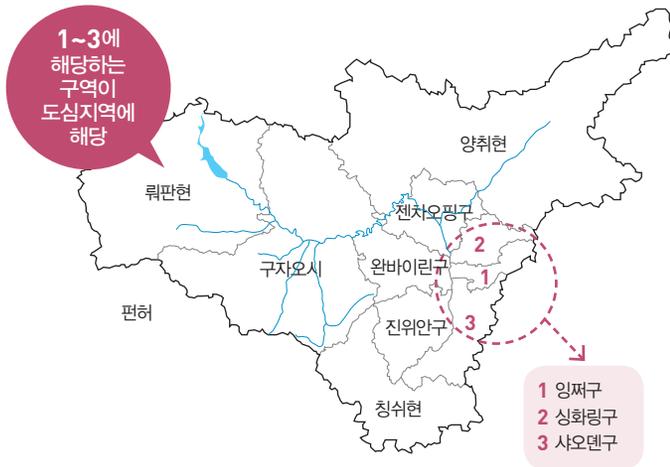
- 타이위안시는 6개의 구(區), 1개의 현급시(縣級市), 3개의 현(縣)으로 구성
  - 도시 서쪽은 산지이며, 도시를 남북으로 흐르는 편허(汾河) 주변에 형성된 오른쪽 분지 지역에 인구가 밀집
  - 특히 편허의 오른쪽에 위치한 잉쩌(迎澤)구, 싱화링(杏花嶺)구, 샤오톈(小店)

<sup>5</sup> 대표적인 진상으로는 1850년대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전역 200곳에 점포를 둔 거상 차오즈옹(喬致庸)이 있음.

구가 가장 발전한 도심지역에 해당

- 잉쩌구: 타이위안의 구도심으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고 상업이 발달
  - 싱화링구: 산시성 및 타이위안시 정부기관이 소재한 정치 중심지
  - 샤오덴구: 최근 발전이 가장 빠른 신도심으로, 산시대 · 산시재경대 등의 대학 및 경제기술개발구 · 첨단기술산업개발구와 같은 주요 산업단지가 운집
- － 구자오(古交)시는 전국 최대 코크스 생산기지이며, 젠자오핑(尖草坪)구는 타이위안강철그룹이 소재한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지

그림3 타이위안의 행정구역 및 진상박물관 · 편허 풍경



자료 지도-위키피디아 그림파일 수정(<https://en.wikipedia.org/wiki/Taiyuan>): 사진(上)-저자 촬영, 사진(下)-바이두 백과([http://baike.baidu.com/link?url=-vSu8Ba0Z1\\_mlnnlvdND4lKNWoAqY3llsroGv\\_Mj74CkBwkLir0EcCUU-CXD0HkKHbY9RQLvWpcu77HVWLMeva](http://baike.baidu.com/link?url=-vSu8Ba0Z1_mlnnlvdND4lKNWoAqY3llsroGv_Mj74CkBwkLir0EcCUU-CXD0HkKHbY9RQLvWpcu77HVWLMeva))

## 경제 현황

- 타이위안시의 2015년 GRDP는 2,735억 위안으로 중부지역 6개 성도 중 가장 작음 (<그림 2> 참조)
  - － 중부지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우한시의 약 1/4 수준
- 석탄수요 감소에 따라 타이위안시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5년 다시 회복세를 보임
  - － 중국의 성장둔화 및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국 석탄가격이 2011년 853위안/톤에서 2014년 532위안/톤으로 크게 하락<sup>6</su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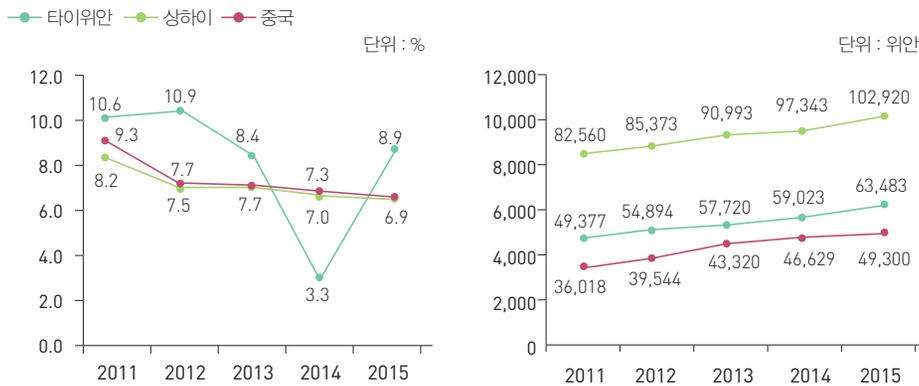
鳳凰網 山西經濟斷崖式下滑：煤價連跌 太原GDP僅增0.1%，2014.5.13

- 타이위안시의 GRDP 성장률은 1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석탄·철강 산업이 타격을 입으며 201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 전국 최저 수준인 3.3%를 기록<sup>7</sup>

■ 타이위안시의 2015년 1인당 GRDP는 63,483위안으로 상하이의 62% 수준

- 중부지역 6개 성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완만히 성장하는 추세
- 1인당 GRDP는 높지 않으나, 광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석탄재벌(煤老板)이 많아 고급차, 사치품 등 럭셔리 소비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

그림5 타이위안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RDP(2011~2015)



자료 CEIC, 각 지역 2016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 타이위안시는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석탄·채굴 및 세선(洗選)업, 장비제조업, 컴퓨터·통신·전자설비제조업이 발전

- 풍부한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자원의 채굴·가공·운반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
  - 타이위안을 대표하는 기업인 타이위안강철그룹은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
  - 광물의 생산·운반, 야금과 관련된 중장비 제조업체로는 타이위안중형기계그룹(太原重型機械集團)이 대표적
- 탄광 자동화시스템 관련 IT제품을 제조하는 Rockontrol, 강재 처리 기술을 보유한 Harsco 등 타이위안에 진출한 외자기업도 대부분 자원 관련 기업
- 아이폰 조립으로 유명한 대만기업 폭스콘이 2003년 타이위안에 공장을 세우면서 컴퓨터·통신·전자설비제조업이 발전

<sup>7</sup> 시진핑(習近平)이 반부패 캠페인을 펼치며 2013~2014년 탄광개발 이권을 둘러싸고 광산회사 임원과 정부 고위관리 간 결탁이 만연한 산시성에 대한 사정이 강화되자(2014년 8월 타이위안강철 CEO 출신인 타이위안시 당서기가 비리혐의로 낙마하기도 함), 지역의 경제활동 위축, 정책 추진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음

표4 타이위안시 주요 외자 기업 현황

진출연도	기업명	투자국	주요 사업
2003	폭스콘	대만	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제품 제조, 아이폰 조립
2003	Rockontrol	미국	탄광 자동화 시스템 관련 IT제품 제조
2005	월마트	미국	대형마트 운영
2005	Rockwell	미국	야금, 광산관리, 수처리 관련 자동화 제품 제조
2011	까르푸	프랑스	대형마트 운영
2011	Harsco	미국	강재(鋼滓) 처리, 강재를 활용한 친환경제품 생산
2013	포드	미국	장링자동차(JMC)와 합자로 트럭 제조

자료 박진희, 2013,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 太原市) 보안

### 13·5 규획 시기 도시 발전 계획

- 13·5 규획 시기에 타이위안시는 7.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
  - 석탄·철강 등 공급과잉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 자원 의존도가 높은 타이위안시는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sup>8</sup>
  - 산시성 전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로, 타이위안시의 목표치는 산시성 내 다른 도시보다 높은 편
  - 자원 관련 기업의 통폐합 및 기술개발로 생산 효율·제품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강화할 예정
    - 특히 서비스업을 매년 8% 이상 성장시켜 도시 경제를 이끄는 기반으로 삼고자 함

표5 타이위안시의 13·5 규획 시기 주요 발전계획

구분	주요 발전 계획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7.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뤄 2020년 GRDP 4,000억 위안 달성</li> <li>•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마련</li> </ul>
산업	<p>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 생산 기계화·집약화·정보화, 석탄·전력·화공 통합 발전 추진</li> <li>• R&amp;D 확대로 스테인리스강 심가공, 고성능 자성소재, 알루미늄 합금 등 분야 고성능 신소재 개발, 철강 품질 강화 및 품종 다양화</li> <li>• 석탄층 메탄가스·풍력·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 등 신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li> <li>• 궤도교통 장비, 석탄정제기, 기중기 등 중형장비 제조산업을 발전시켜 천 억 위안 규모의 장비제조 클러스터 조성</li> </ul>

### 8

중국은 최근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등 분야의 생산과잉을 해결하고자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철강 생산력(capacity)은 1억 ~1.5억 톤 감축하고 석탄 생산력은 약 5억 톤 감축하며 석탄기업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 및 지역의 성장이 둔화될 전망

<p>서비스</p> <p>산업</p>	<p>• 진초(晉祠), 진양고성(晉陽古城) 등의 역사·문화유적 및 채석장·폐광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단지과 관광프로그램 마련, 도시 관광수입 매년 13% 이상씩 확대</p> <p>• 기업 성장·채권 발행·융자채널 확대, 국내외 은행 및 보험·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구 적극 유치, 민간 상업은행 설립 장려</p> <p>• 철강, 석탄 등 자원 거래와 농산물 거래 등 분야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도입해 전자상거래 교역액 매년 30% 이상씩 확대</p>
<p>인프라·환경</p>	<p>• 타이위안-위츠(榆次) 지역 간 도시철도 건설</p> <p>• 지하공간을 개발해 지하 공공주차장과 같은 교통, 상업 시설로 활용</p> <p>• 우수처리장 신설로 도시의 우수처리능력 97만 m<sup>3</sup>/일로 확대,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및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100% 달성, 골목 조명시설·무선인터넷망 확충</p> <p>• 석탄보일러 폐기, 건설용지 및 광산 먼지 발생 감축, 자동차 배기가스 엄격 단속, 오염물질 배출 많은 일부 발전소 폐쇄</p> <p>• 500m마다 공원을 볼 수 있게 공원 경관 개선 및 도시 근교 삼림공원 확충, 도로 조경 확대로 도시 녹지화율 42%로 확대</p>

자료 타이위안시 13.5 규획(太原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 타이위안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太原市政府工作報告)

- 제조업 분야에서는 석탄·철강 산업 개선, 신에너지 발전에 노력
  - 석탄 생산시스템의 기계화·정보화를 강화하고, 고성능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합금 등 신소재 개발을 통해 기존의 저품질 다량생산 체제를 고품질 다품목 생산 체제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원자재 수요 변화에 대응
  - 석탄·전력회사 간의 연합, 석탄·코크스·철강회사 간의 연합을 추진해 석탄·전력 산업체인을 강화함으로써 석탄 이용 효율 향상
  - 석탄층 메탄가스·풍력·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 등 화력발전을 대체할 신에너지 산업 육성
- 또한 관광업, 금융업, 전자상거래, 물류, 양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업 발전에도 주력할 계획
  - 2,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 타이위안은 5세기경 건립된 도교사원인 진츠, 전국시기 조(趙)나라 도성 유적지인 진양고성 등 역사·문화 유적이 풍부함. 타이위안시는 이러한 유적지를 복원하고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매년 13% 이상씩 늘림으로써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고자 노력 중
  - 기업 성장·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국내외 은행 및 보험·증권회사를 유치하는 등 금융업을 육성해 금융업이 도시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
  -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원자재·농산물 거래 등 분야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 타이위안-위츠 지역 간 도시철도 건설과 지하공간 개발과 같은 인프라 개선, 대기환경 개선에도 노력
  - 타이위안시는 도시 동남편의 샤오덴구와 인접하고 있는 진중(晋中)시 위츠구를 타이위안시와 통합 발전시켜 과학기술 혁신단지를 조성 중으로, 두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운행할 계획
  - 도시 난개발, 자동차 보유자 수 확대로 도심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지하공간을 개발해 주차장, 상업시설로 활용
  - 타이위안은 2015년 ‘공기 나쁜 10대 도시’에 선정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로 조경 · 삼림공원을 확대하고 일부 오염유발 공장 폐쇄,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강화

### 한국과의 교류 현황

- 한국에서 지명도가 낮은 타이위안시는 아직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으며, 산시성이 전라남도 와 우호관계로 교류 중
  - 전라남도는 산시성과 2015년 말 관광 · 농업 ·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3월 무안-타이위안 간 정기 전세기 운영을 시작하는 등 교류 확대 중

### 표 6 타이위안시-한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현황(2016년)

	한국 자치단체명	체결일자	체결형태
타이위안시	-	-	-
산시성	전라남도	2007.11	우호(자매결연 예정)

자료 행정자치부,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국가별) 등 각종 자료 정리

- 타이위안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매우 적은 편이며, 타이위안-한국 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음
  - 철파이프, 파이프 연결재료 등의 철제품 제조기업,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등 소수 중소기업이 진출
  - 타이위안시 주민소득이 향상되고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2012년부터 인천-타이위안 직항노선이 확충되면서 양측 관광객 증가

---

### 참고문헌

- 박진희, 2013,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 太原市),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3-04
- 2012,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 合肥市),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2-08
- 타이위안시 13·5 계획(太原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
- 타이위안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太原市政府工作報告)
- 행정자치부,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국가별)
- 허페이시 13·5 계획(合肥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
- 허페이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合肥市政府工作報告)
- 허페이시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合肥市201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허페이시정부 홈페이지([www.hefei.gov.cn](http://www.hefei.gov.cn))
- CEIC Database
- EIU, 2015, Access China: Hefei
- EIU, 2015, Access China: Taiyuan